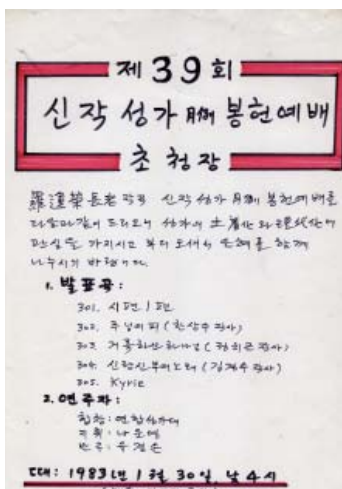


13. 제4의 창작기(1993)

1993년(72세) 1월 19일 호주 멜본 한인교회에서 개최한 나운영 박사 초청 성가대강습회에서 강연을 하였다.



9월 26일 <제162회 신작성가 율례 발표회>를 호산나교회에서 가졌다. 1,105번째 한국찬송가인 「쟁기 들고」(김경수 작사)를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끝으로 1979년 9월부터 시작한 찬송가 봉헌의 기나긴 장정이 끝난 것이다. 나운영은 1979년 9월 제1회 때에는 나운영 작곡 신작찬송가 율례 봉헌예배로 시작하였다가 1983년 1월 제39회부터는 신작성가 율례 봉헌예배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1988년 3월 제100회부터 신작성가 율례 발표회로 바뀌어진다. 이에 따라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초청장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제2회 (1979년 11월) 특히 찬송가의 토착화와 현대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1983년 1월) 성가의 토착화와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디 참여하

서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1992년 3월) 성가의 토착화와 현대화 및 성가에 의한 교회일치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디 참여하
서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봉헌하던 것이 어느덧 성가로 바뀌고 있다. 나운영은 제1회부터 25회까
지는 주로 개편찬송가, 합동찬송가, 새찬송가의 가사 중 잘 불리어지지 않는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작
곡을 하였고, 26회부터는 한국인이 직접 작사한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를 작곡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를 300곡이 넘게 작곡을 하다 보니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날 조짐이 생겨
났다. 나운영은 평소 자신의 곡을 자기 스스로가 표절하는 일이 생겨나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곤 했었
는데, 300곡이 넘어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발표한 찬송가와 엇비슷한 곡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이다. 찬송가 가사라는 것이 7·5절이나 7·4절로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가사에 맞추어 작곡을 하
고, 더욱이 나운영이 평생 주창해 온 한국화성을 덧입히니 판에 박힌 듯한,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
작한 것이다. 나운영은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 제39회부터는 찬송가와 함께 독창곡, 합창곡 등의 성
가를 포함하며 스스로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145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 봉헌예배에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도 함께 참
석하게 되었다. 특히 이해인 수녀님은 가사도 작사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녀님들과 함께 자
주 봉헌예배에 참석하였었다. 나운영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구교나 신교의 구분은 필요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하여 이 봉헌예배를 통해 교회일치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Mass(Kyrie-Gloria-Agnus
Dei-Sanctus-Benedictus-Credo로 구성된 미사곡) No.1~3을 작곡하였다.

나운영의 생각은 1992년 1월 제143회 봉헌예배에서 발표된 김경수 작시 「하나 되게 하소서」에 잘
나타나 있는 듯해 여기에 일부를 소개한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의 모든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파를 초월하여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온갖 벽을 허물어 하나의 마음 하나의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후략)

10월 21일 오전 나운영은 집에서부터 자신의 서재가 있는 가락동 윤경유치원을 향해 혼자 걸어가다
가 길에서 급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경찰병원으로 옮겼으나 소

생치 못하고 소천하였다. 평소 100살까지 살 거라면서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어쩔 수 없었다.

나운영은 소천하기 하루 전날 밤 수요일예배를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느닷없이 유경손에게 물었다.

“나도 천당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1,105곡이나 작곡했는데 당신이 못 가면 누가 가요?”하고 유경손이 답하자,

“그렇까?” 하고 말했다고 한다.¹²⁷⁾

나운영은 평소 가족들에게 “난 아프면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해 왔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콘택 600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쓸 정도로 자신의 몸을 아껴왔다. 더욱이 항상 걸어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식사도 소식小食을 하였으며, 수면습관은 ‘눅자마자 코를 드르렁’ 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자신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나운영 자신은 그날 무언가를 느꼈었나보다.

나운영은 이 해 1월 시드니에서 만난 크리스찬 리뷰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79년 9월부터 1990년까지의 12년은 나의 창작의 공백기가 절대로 아니라 창작의 모색기(실험기)였다. 1993년부터는 소신껏 나의 제4기가 시작된다.”

그렇다. 나운영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지칠 줄 모르는 창작의욕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1979년 9월이라면 그가 한국찬송가 작곡을 결심하고 실행한 해이다. 한국찬송가 작곡에 매달려 다른 작품 활동은 별로 하지 못했던 그 세월을 나운영은 창작의 모색기라 하고 있다.

실제 그의 메모를 보면 구상 작시의 ‘나사렛 예수’를 기반으로 한 「교향곡 제14번」과 김경수 작시의 ‘해방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교향곡 제15번」을 구상하는 등, 제4의 창작기를 위해 준비한 흔적들이 남아 있고, ‘한국양악 100년사’와 ‘난파의 생애와 예술’을 집필하고자 자료를 모아온 봉투들이 캐비닛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운영을 부르셨다. 1,105곡의 한국찬송가면 충분하다고 하신 듯….

127) 유경손 자서전 301쪽.

나운영은 그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대로 ‘그의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남기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

나운영이 소친한 그 날은 오전에는 날씨가 아주 쾌청했었는데, 정오경 거짓말처럼 갑자기 어둠이 내리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기상이변이라 생각되던 그 시각, 집에서 자신의 서재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나운영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은 뜨겁게 불타며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고, 그의 예술혼은 그의 작품으로 남아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게 되었다.



그의 유해는 집안 내력대로 나장裸葬(관을 쓰지 않는 장례법)으로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대전공원묘원(충남 연기군) 양지바른 곳에 안치되었다. 무덤 앞 비석에는 “한국음악의 선토착화 후현대화의 굳은 신념으로 일평생 많은 연구와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다”라고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펼쳐진 악보처럼 깎아서 만든 상석이 놓여 있는데, 이 상석에는 나운영의 친필을 그대로 새겨 만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의 악보 일부분이 조각되어 있다.¹²⁸⁾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 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예술인으로서의 최고의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5단계의 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이다.



128) 나운영이 소친하고 18년이 지난 2011년 8월 20일 유경순도 자택에서 포레의 「레퀴엠」 중 「피에 예수」(Pie Jesu)를 들으며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 완벽한 디미뉴엔도를 표현하듯 마지막 실낱 같은 숨을 끝으로 하나님 품으로, 또한 평생의 반려자 품으로 떠나갔다. 유경순은 나운영과 합장되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